



Jang Geonyul

장건울 (b.1992)

학 력 2021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 석사 졸업
2016 창원대학교 미술학 졸업

개 인 전 2024 눈, 손, 마음 (아리랑 갤러리, 부산)
My Archive (Space MOK, 창원)
2023 꽃, 버드나무 그리고 저수지 (갤러리 까비넷, 서울)
무지개 갈잎 (갤러리 이든, 서울)
2022 Tracks (아리랑 갤러리, 부산)
2021 Collect it. Write it. Overwrite it. Tune it. Save it
(부산현대미술회관, 부산)
2020 Take a picture (inside gallery, 창원)
그 외 다수

초대 / 단체전 2024 코모레비 (갤러리 휴, 부산)
crossing (마산현대미술관, 창원)
부산, 커넥티드 (부산금고미술관, 부산)
꽃과 과일 (페이토 갤러리, 서울)
단초전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창원)
2023 낫선, 낫설지 않은 (창녕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창녕)
단초전 (동남아트센터, 창원)
Blooming room (갤러리 까비넷, 서울)
2022 Greetings (이코노그라피아, 서울)
사랑의 기하학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아티스트쇼룸 (경남도민의 집, 창원)
2022 창작스튜디오 자작 (진해야외공연장 전시장, 창원)
1992년생 (와이탄 18호 구사이트 갤러리, 중국 상하이)
새로운 남쪽의 현재 (Mcontemporary, 부산)
그 외 다수

레 지 던 시 2024 마산현대미술관 레지던시 입주작가
2023 창녕아티스트레지던시 입주작가
2022 창작스튜디오 자작 입주작가

“꽃의 형상에서 추출된 조형요소를 조각하며, 순수한 추상의 캔버스로 나아가다”

장건울 작가는 일상 속 마주하게 되는 꽃, 식물들에서 추출되는 형상을 적극 받아들이며 조형의 순수성을 탐구한다. 꽃을 모티브한 구성/추상의 두 범주로 회화를 전개하지만 저마다의 꽃은 사실적으로 재현된 것이 전혀 없다. 장건울 작가는 가방에 드로잉 도구를 챙겨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경남일대의 풍경을 눈에 담은 여정을 떠난다. 나무와 저수지, 산과 강 등 자연물이 만들어내는 형태들 가운데 수집하고 싶은 대상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드로잉을 한다. 자연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작품으로 그려지는 자연은 바라보는 이의 시선과 손길, 마음을 더해 온전히 나의 것, 나만의 언어로 치환되며 담긴다. 자연의 대상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지닌 시간과 움직임, 형태적 아름다움과 조형적 미에 온전히 집중하며 마주한 반짝이는 순간들 속, 감정들이 곧 작품 속 점, 선, 면, 색, 형태의 조형적 요소가 두드러진 표현으로 나타난다.

Artist's Note

장건을 - 꽃과 자연의 형상에서 추출된 조형요소를 조각하며, 순수한 추상의 캔버스로 나아가다.

최근 그림을 그려야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풍경과 손으로 그리기 위해 집중해서 보는 풍경은 확연히 다르다. 나에게 그림은 외부의 모습을 화면에 옮기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는지 탐구하는 과정이다. 고흐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그림은 이미 자연 안에 있어 꺼내 주기만 하면 된다.”

자연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빛은 변화하며, 바람은 잎사귀를 흔든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연의 시간에 한 사람의 시선과 손길, 그리고 마음을 더하는 작업이다.

작년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야외로 나가 그림을 그렸다. 가방에 종이와 붓, 물감을 챙겨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강과 저수지, 산과 하천, 그리고 수많은 나무를 바라보았다. 눈앞의 장면을 그려 나가며 하나의 선, 한 번의 붓질에도 선택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나무 한 그루에도 그것이 지닌 시간과 움직임을 어떻게 담아낼지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복된 과정을 통해, 나는 본 것과 그린 것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재현의 방식이 아닌 '그리기'라는 행위가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작년과 올해 창녕과 마산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과슈로 그렸다. 매일 다른 풍경 속에서 매번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다. 이미 아름다운 풍경은 눈앞에 있으니 그저 화가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종이에 옮겨 담자고. 물감으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색을 만들고, 색을 칠하는 것. 결국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그저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자체다. 흔들리는 잎을 어떻게 표현할까,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질감을 어떤 색과 붓질의 방향으로 담아낼까. 성실히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전부다. 이 과정의 끝에 그려진 그림과 그간의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매번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림이 무엇이냐고.

여전히 그림은 어렵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반대로 그리지 못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하루가 짧다는 것을 실감한다. 눈으로 본 것을 손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담아냈다. 결국 내가 그리는 그림은 살아가며 마주친 장면들. 내가 그 안에서 느낀 삶의 일부이다. 그림을 그리고 난 뒤 나에게 남은 것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시간과 과정, 그 속에서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본 흔적들이다. 그리고 이 흔적들을 통해 나는 삶을 정돈하고, 내가 그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림은 항상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오늘도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언어를 찾아간다. 눈앞의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 것. 그것으로 시작해 그리기라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다.